

‘한글 맞춤법 통일안’(1933) 발표에 대한

문인들의 태도와 준용 실태 고찰*

- ‘한글’ 지(1934-35)를 중심으로

한영목(충남대) · 김덕신(충남대)

< 목 차 >

1. 서론	3.1 ‘한글’ 지에 소개된 출판사의 통일안 반영 실태
2. ‘한글’ 지를 통해 본 문인들의 통일안 보급 실태	3.2 이태준과 이효석의 작품에 나타난 표기법 비교
2.1 문인들에 대한 사회의 기대	4. 결론
2.2 통일안 보급에 대한 문인들의 태도	
3. 문인들의 작품에 반영된 통일안 준용 실태	

1. 서론

우리 국어학사에서는 통일된 규범 언어가 없어 혼란을 면치 못했던 때가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리 나는 대로 썼고, 간혹 국어에 조예가 있는 사람이라면 형태를 적어 주어 소리와 달리 표기하기도 하여 혼란이 심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조선어학회 회원들이 중심이 되어, 우리말의 균질성과 통일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규범 언어를 제정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1933년에 발표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하 ‘통일안’으로 함)이다. 한글학회 50년사(1971)나 김덕신(2006) 등에서 살폈듯이 그 의의는 일개 언어의 통일이 아닌 국민의

문화와 민족성을 한층 고양시킨 사건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박승빈을 중심으로 한 정음과는 조선어학회의 통일안 제정에 반기를 들어 통일안의 홍보와 계몽에 신경 써야 할 조선어학회에 정음과와 논쟁까지 해야 하는 부담을 안겨 주었다. 이들의 논쟁에서 조선어학회에 손을 들어 준 것은 1934년 7월 9일에 78명이 발표한 한글 철자법 시비에 대한 성명서이다. 신문에 대서특필된 이 성명서에서 ‘문자 사용의 제일인자적 책무’를 맡은 자로 자임한 문예가¹⁾ 78인은 반대운동의 측을 “일즉 학계에서 들은 적 없는 야간총생(夜間叢生)의 학자”라고 명명함으로써, 반대운동자들의 권위를 실추시켰다. 문예가의 성명서가 한 번 우리 사회에 발표되자, 각 지방으로부터 개인의 명의로 독려문(督勵文)이 답지한다.²⁾ 이는 문자생활에서 문인의 역할과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본보기이다.

통일안은 조선어학회, 기독교, 언론기관, 한글강습소(야학, 간이학교) 등과 같은 곳에서 적극적으로 앞장섰기에 보급 면에서 큰 결실을 본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그간의 연구도 이 방향으로 상당 부분 이루어졌다(한글학회, 1971). 그러나 통일안과 관련하여 당대 지식인들을 대표하면서 언어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문인들에 대해서는 연구가 미비했다. 특정 작가를 살핌에 있어서 통일안에 대한 작가들의 견해를 밝히는 정도에 그쳤거나, 작가 개인의 언어관이나 의식 등을 살피기 위해 작품을 분석하면서 보조적 수단으로만 언급하는 정도였다. 이는 문학자들의 입장에서 접근했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는 통일안 발표에 대한 문인들의 활동을 고찰하되, 국어학적 시각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먼저 문인들의 한글 보급 태도에 대해서 살피기 위해서 ‘한글’ 지³⁾에 나타난 논문들(1934-35)과 문인들이 기고한 잡글을 살핀다. 이를 통해 통일안과 관련하여 문인들에 대한 사회의 기대와 문인들의 태도를

1) 문인들을 명명한 용어는 ‘문예가, 문필가, 문인’ 등으로 나타난다. 본고에서는 ‘문인’으로 명명하고, 원전을 인용할 경우는 원전에 따른다. 또한 본고는 통일안 당시의 표기법을 살피는 목적이 있으므로 이하 인용문은 원전에 실린 당시의 표기법을 그대로 따른다.

2) 특히 ‘전라남도 광주 기독교 청년면려회’는 문인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노력하자는 성명서를 발표한다.

3) 본고에서는 ‘한글’, ‘달밤’, ‘가마귀’, ‘돈’, ‘산’ 등을 모두 ‘ ’ 로 표시한다.

* 이 논문은 2005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02005-079-AS0118)

확인하게 될 것이다. 또한 당시 문인들의 통일안 수용 정도와 나아가 문인들의 임무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통일안 발표를 기점으로 발표된 작품의 원본 분석을 통하여 당시의 국어 표기 모습을 밝히게 될 것이다. 본고는 특별히 통일안 보급에 앞장선 이태준의 작품을 분석하여 그 반영 정도를 확인해 보려 한다. 이태준의 많은 작품 중 본고는 통일안 준용의 모범이 될 수 있는 ‘달밤(1933)’과 통일안 발표 이후에 나온 소설 ‘가마귀(1936)’를 선정하여 비교하는 방법을 취한다. 통일안에 대한 이태준의 반영 정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두 작품과 같은 해에 나온 이효석의 작품 ‘돈(豚)(1933)’과 ‘산(山)(1936)’을 같이 분석할 것이다.

본고는 새로운 사실을 규명한다기보다 우리 어문 규범사에 나타난 현상을 문인의 활동 영역으로 확대하여 일정 시기의 현상을 확인하는 데 목적을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한글’ 지를 통해 본 문인들의 통일안 보급 실태

당시 통일안의 계몽 보급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조선어학회가 중심이 되어 가장 적극적인 홍보를 한 것은 말할 것도 없으며, 각급 학교와 언론계, 종교계⁴⁾ 등 사회 각 방면에서 통일안의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들은 모두 기관이나 단체가 중심이 되었다는 점에서뿐만 아니라 통일안을 빠르게, 그리고 직접적으로 보급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통일안 지지뿐만 아니라 보급에 대한 문인들의 영향력은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컸지만, 문인들은 개인으로서 직접 통일안을 교육하거나 계몽 현장에 나서지는 않았다. 따라서, 문인들의 통일안 보급 모습을 살피기 위

4) 그러나 통일안에 격렬하게 대항한 개신교 중심의 기독교 측에서는 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였다. 학회에서는 종교 단체 자체에서의 해결을 기대할 수 없어, 1935년 10월에 통일안 보급을 조직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글 통일안 보급회’(사무실:시내 의주동 1정목 139번지)를 조직하고, 통일안 찬성원을 모집하는 한편, 그 첫 사업으로서 ‘신약 전서’ 한 권을 우선 통일안에 따라 개정 인쇄하기로 계획하고, 대체로 첫째 출판에 만 부 가량을 박을 작정으로 전국 각 교회로 주문할 부수를 조회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다. 이와 달리 언론, 강연회, 신문 강좌를 통한 언론계의 계몽은 종교계보다 나왔다(3.1 참조).

해서는 오히려 주변적인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1에서는 먼저 문인들에 대한 사회의 기대, 그리고 통일안을 이끈 조선어학회의 기대에 대해 살핍으로써 문인들의 간접적인 통일안 보급 모습을 밝힐 것이다. 2.2에서는 통일안에 대한 문인들의 직접적인 행동과 반응을 살필 것이다.

2.1 문인들에 대한 사회의 기대

‘한글’ 제2권 1호부터 9호까지에 실린 ‘한글의 통일과 보급 각계 여러분의 말씀’ 난은 제목을 보고도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한글 통일과 보급’에 대한 ‘(사회) 각계 여러 사람들의 말’을 모아 놓은 것이다. 이것은 ‘한글’의 대중화를 선언하고 편집 의도를 바꾼 이후 새로 만든 난으로서, 학회는 각계 인사들에게 청탁 형식을 취해 원고를 실은 것이다. 이 난은 총7회에 걸쳐 실렸는데, 투고자들을 보면, 교육자가 33명, 잡지사 26명, 종교인 6명, 언론인 2명, 기타 1명의 순으로 나타난다(김덕신 2006:104). 이들의 글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첫째, 통일안 보급 방법에서 당시의 문인들에 대한 요구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문인들에 대한 기대를 확인할 수 있다(2.1). 둘째, 투고자의 반 정도를 차지하는 잡지사 주간들의 글을 통해서 당시 잡지사들의 통일안 준용 실태에 대하여 알 수 있었다(3.1).

2.1에서는 문인들에 대한 기대를 가늠할 수 있는 글들만을 정리해 본다. 먼저 문인들에 대한 직접적인 바람을 담은 글들을 소개하고, 다음으로는 조선어학회측의 기대를 소개한다. 전문(全文)을 실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관련된 부분만 인용하여 제시한다.⁵⁾

(1) 문인들에 대한 기대

- ㄱ. “그 안의 보급 방법은 첫째 교과서야 나와 하겠고, 그 다음에는 언론 기관과 일반 문필가들이 힘써 행하여야 되겠고...”(한용운, 불교가).
- ㄴ. “선발대로 문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먼저 실행하는데에 가장 용감한 투사가 되어야...”(송진우, 동아일보사장).

5) 필자는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인용 예 중 일부에 밑줄을 그어 제시하고자 한다.

다. “문필에 종사하시는 분들부터 한글 통일안에 익숙하도록 공부하셔야 되겠으니...”(김여식, 협성실업학교장).⁶⁾

(1)의 기사들은 ‘문필가들이 나서야, 문필에 종사하시는 분들부터 나서야’처럼 문인들이 나서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모두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한다면 노자영(신인문학 주간, 1934.10.)의 말처럼 “우리의 한글은 몇해가 아니되어 바루잡히리라.”고 기대하였다.

다음 (2)는 문인의 작품이나 기존의 친구소설 등을 통일안대로 써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들이다. 이는 대중소설이나 당시 조선의 대중독물(大衆讀物)로 되어 있는 친구소설 등이 대중과 가까이 있었음을 보여 주기도 하는 것이다.

(2) 통일안대로 써 주기를 요청하는 기사

ㄱ. “대중소설 같은 것으로 하면 꼭 좋을것 같습니다”(전필순, 기독교신문사장).

ㄴ. “조선의 대중독물(大衆讀物)로 되어 있는 친구소설등에까지 손을 대야 될 줄 믿습니다”(안준식, 별나라 주간),

(2)처럼 문인들이 나서고 대중이 즐겨 보는 당시 대중독물(大衆讀物)을 통일안대로 쓰는 것에 대하여 이은상(신가정 주간, 1934.7.)은 “이러한 아름다운 복종은 반듯이 조선 문화의 발전에 큰 힘을 가져 오는 중대한 방법중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이를 정리해 보면, 당시 사회 각계각층의 사람들은 문인들의 작품이나 친구소설까지도 통일안대로 써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이것들이 대중과 관계있는 대중독물(大衆讀物)로서 소설의 감상뿐만 아니라 통일안을 소개하고 깨우치기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문인들에 대한 조선어학회의 태도도 살펴보고자 한다. ‘한글’은 이

6) 이밖에도 “이를 보급하자면 먼저 문필에 종사하는이와 출판계에서 착실히 하여야 할 것이 고……”(안종원, 양정고등보통학교장), “첫째 문필가 교육가들이 먼저 깨쳐야 하겠고……”(이경렬, 배재고등보통학교교무주임), “글쓰는 사람들이 선봉대가 되어 통일안대로 쓰도록 노력해서……”(주요섭, 신동아 주간), “글쓰는 사람이나 신문 잡지를 경영하는 사람이나 학교 선생들이나 이 통일안을 성심으로 실행하면……”(노자영, 신인문학 주간) 등과 같은 기사가 많이 실렸다.

광수의 『흙』(1935.1.), 이태준의 『달밤』(1934.8., 1935.1.), 심훈의 『영원의 미소』(1935.3., 1935.9.) 등 통일안으로 인쇄된 유명 문인들의 신간 서적을 소개하거나 열거하는 광고를 게재한다. 광고된 소설들은 통일안을 따르고 있는 작가의 작품들로서 학회의 취지에 맞기 때문에 실린 것으로 보인다.

광고된 작품은 다시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개인의 작품이나 작품집을 단독으로 광고한 예이다. 심훈의 『영원의 미소』는 4회나 소개되었으며, 그 외 심훈의 『상록수』, 『흙』, 이태준의 『달밤』, 김안서의 『망우초』, 전영택의 『동화집』, 이은상의 『시조노리』등은 모두 2회씩 광고되었다. 그 외 장정심의 『시집』, 이은상의 『조선사화집』 등도 1회씩 소개된 작품들이다. 그밖에 최재서의 『문학과 지성』과 같은 평론집이 소개되기도 하였으며, 지은이를 알 수 없는 『조선가요집성』이나 『청공세심기』 등도 소개되었는데 이들은 한성도 서주식회사에서 발간한 것이었다. 특히 이태준의 ‘달밤’을 광고할 때는 “全篇을 ‘한글 맞춤법 통일안’ 그대로 되었으니, 小說을 읽는 한편에 統一案에 對한 智慧를 얻을수 있을것이다.(1934.8.)”라고 설명을 붙이기도 하였다.

둘째는 아래 (3)과 같이 여러 작가와 작품들을 한 면에 함께 올린 단체 광고를 실음으로써, 독자는 그러한 책을 소개받게 되고, 학회는 간접적인 통일안 학습을 꾀하기도 하였다.

(3) 단체 광고⁷⁾

본회의 양서-심훈, 이태준, 이광수 책 소개

7) ‘한글’ 지에서는 세로로 광고되었으나 여기에서는 가로로 풀어 놓는다. 그리고 ‘한글’ 지는 제 3-7권(1935-39년)에도 계속 문인들의 작품에 대한 광고를 실고 있어 소개한다.

- (1) 현대조선 장편소설전집(제1기회화판전집권)-한성도서주식회사
고향(상)-이기영, 고향(하)-이기영, 이차돈의사(이광수), 제2의운명(이태준), 모란이꽃필때(염상섭), 청년김옥균(김기진), 순정해협(함대훈), 삼곡선(장혁주), 직녀성(상, 하)(심훈)
- (2) 한글 제4권 제10호(1936.11)-고심훈의절필소설 상록수-한성도서주식회사
- (3) 한글 제6권 제9호(1938.10)-이희승선생편 역대조선문학정해, 최재서평론집 문학과지성, 최재서선생저 해외서정시집
- (4) 한글 제6권 제10호(1938.11)-조선문학의최고수준, 팔도풍물시집, 짙레꽃(김말봉), 역대조선문학정해(이희승), 문학과지성, 해외서정시집, 정인명야담집, 대하(김남천)
- (5) 한글 제6권 제11호(1938.12)-서적해방의전위 조선문고, 원본출향전
- (6) 한글 제7권 제4호(1939.4)- 원본출향전, 현대조선시인선집, 해바라기, 소년행, 김립시집
- (7) 청구영언, 고려가요, 조선민요집(학예사)

문예독본개간
 현대 조선 장편소설집
 조선 문학 전집
 역대조선문학정해(이희승)
 조선문고
 번역작품-한인역(무풍지대), 세계소화집, 만향동화집

그 외에도 조선어학회는 “아무리 훌륭한 좋은 철자법이 생겨났다 하더라도, 세상사람의 거기에 대한 이해가 없고, 문필에 종사하는 이들이 실행하여주지 아니하고보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이 그대로 한 수지 문텅이로 돌아갈 밖에 없을 것이 아니냐.”라는 글들을 실어 통일안을 따를 것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미 문인들의 지지 성명서들에 대하여 감사의 글을 실는 등 통일안을 따르는 문인들에 대해서는 ‘한글’ 지에 일일이 이름을 밝히거나 감사를 표했다. 이는 문인들에 대한 조선어학회 나름의 기대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을 정리해 볼 때 조선어학회를 중심으로 그 당시 사회는 문인들이 먼저 나서서 통일안을 적극적으로 지켜줄 것을 요구하는 분위기였음을 알 수 있다.

2.2 통일안 보급에 대한 문인들의 태도

서론에서 밝혔듯이 통일안에 대한 문인들의 찬성은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하였다. 반면에 작가들의 통일안 준용에 대한 당시 사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조선어학회와 조선어학연구회의 대립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일군(一群)의 문인들은 통일안 발표에 대하여 반대 여론을 내놓기도 한다. 먼저 반대론자들의 주장을 제시한다.

먼저 박승빈과 동조자들(이공중, 백남규, 신남철, 문시혁, 정규찬 등)을 중심으로 한 ‘조선문 기사 정리 기성회’들이다. 이들은 총112명(윤치호, 문일평, 지석영, 최남선, 이병도, 유치진 등)으로 ‘한글식 철자법 반대 성명서’를 내고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부조리하고, 역사적 관계를 무시하고, 대중의 학습과 일용의 편의를 방해하여 아동 교육, 문맹 퇴치, 문화 건설 등으로 보아, 사회 문화 발전

상 그 저해됨이 불소하므로 방관 무시할 수 없어, 조선문 기사법의 합리 평이화를 동함’을 표방한다고 하였다(1934.6). 여기에 최남선, 유치진 등과 같은 문인이 관계하였다.

이와 달리 ‘한글 철자법 시비에 대한 성명서’(조선일보 1934.7.10)는 임화, 강경애, 김기진, 박영희, 백철, 이상화, 김동인, 전영택, 정지용, 최정희, 이태준, 박월단, 김기림, 오상순, 박태원, 현진건, 채만식, 김억, 이광수, 염상섭 등 1934년 7월 9일에 전체 문예가들 78명이 꺾기하여 연명으로 통일안 지지 성명서를 낸 것이다. 그 내용은 ‘우리 문예가들은 문자 사용의 제일인자적 책무상 아래와 같은 성명을 발하여 대중의 앞에 우리의 견지를 천호(闡曉)하는 바(1934.8.)’라고 하여 아래 (4)와 같은 성명 삼칙을 발표한다.

(4) 한글 철자법 시비에 대한 성명서 삼칙

1. 우리 문예가 일동은 조선어 학회의 한글 통일안을 준용하기로 함.
2. 한글 통일안을 저해하는 타파의 반대 운동을 일절 배격함.
3. 이에 제하여 조선어 학회의 통일안이 완벽을 이루기까지 진일보의 연구 발표가 있기를 바랍.

그리고 개인적으로 김팔봉(1934.8)은 통일안 반대론자에 대하여 “그것은 용서할 수 없는 죄악이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통일안을 지지하였다. 소설가이면서 동시에 종교인(감리교회보 주간)인 전영택은 “미리부터 나는 잘 써오고 있다.”라고 단언했을 정도로 통일안을 잘 지키기도 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통일안을 지지하고 작품에 직접적으로 반영한 문인으로는 단연 이태준을 들 수 있다.

물론 이들의 논쟁 중에는 신명균, 이희승, 최현배 대 박승빈, 정규찬, 백남규 등이 벌인 국어학적인 지상 공개 논쟁도 있었다. 그러나 통일안 준수에 대한 문예가 78인의 지지 성명은 국어학자가 아닌 문인들 측의 주장으로서, 홍기문(1934)의 말처럼 철자법이라는 것은 학술 논쟁의 대상이기에 앞서 한 사회의 구성원들끼리 정한 합리적 약속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기에 통일된 규범의 준수가 중요했다. 이를 반영하듯 박영희(1934)는 ‘이 철자법 통일안은 일반적으로도 급무이겠으나 특히 우리들에게는 더욱 급무라고 하겠다.…늘

우리글의 철자법의 불통일이 마음에 까닭’이었음을 밝힌 바 있다. 김동인(1934)도 “정서법이 통일 된 것 자체에 커다란 의미가 있다, 조건부로 찬성한다, 세부적으로 이론이 있고, 어학회 측에도 사실에 대한 오인이 있다.”고 하면서 그것을 자세히 지적한다.

이를 통해 통일안 수용이나 보급에 대한 문인들의 태도는 순수 국어학적인 입장에서가 아닌 규범의 필요성이라는 당위성과 매일 글자를 사용해야 하는 문인들의 필요성에서 통일안을 따르는 것이 대세였음을 알 수 있다.

21에서 살핀 대로 조선어학회를 중심으로 한 당시 사회의 기대는 문인들이 통일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귀감이 되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었으나, 그에 대한 문인들의 태도는 통일안 반대론자부터 수용론자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는 문인들의 작품에도 반영되어 비록 동일 시기라 할지라도 그 표기는 사뭇 달랐음을 3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문인들의 작품에 반영된 통일안 준용 실태

심훈의 소설 일부분을 보면, ‘통일안을 준용하여 작품을 출판사에 보냈으나 당시의 출판사 상황은 통일안을 지키지 않고 글을 고쳐놓았다’고 불만을 토로한 부분이 있다. 이는 통일안이 선포·계몽·교육되고, 활자화되어 사회에 정착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하다. 조선어학회는 통일안 선포의 주체자이다. 그리고 학회를 중심으로 교육계, 종교계는 계몽과 교육에 앞장선다. 문맹퇴치까지 꾀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통일안 보급의 결과물은 각종 인쇄·출판물이 이를 따르는 것이다. 그러나 통일안이 활자화되어 출판되는 것은 시간을 요하는 일이었다. 물론 적극적인 기관은 새로운 활자로 바꾸기도 하였지만, 당시의 인쇄·출판물을 보면, 통일안에 맞춘 새로운 활자를 미처 구비하지 못하여 통일안 이전대로 출판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문인들의 작품 속에서 통일안 반영 정도를 살펴보는 일은 쉽다. 단순히 작품만으로 그 정도를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쇄·출판 문제까지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3장에서는 먼저 당시의 잡

지나 인쇄소의 실태를 살핀 후, 문인들의 작품을 비교하여 그 반영 정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3.1 ‘한글’ 지에 소개된 출판사의 통일안 반영 실태

당시 잡지의 상황은 통일안대로 활자를 바꾸어 인쇄한 경우와 여러 상황에 의해 활자를 바꾸지 못해 통일안을 지키지 못한 경우의 두 부류가 있었다. ‘한글’지에서는 통일안 준용에 대한 잡지들의 두 경우가 잘 나타나 있어 소개한다.

(5) 통일안을 준용하고 있는 잡지들의 기사

- ㄱ. “우리 기독교 청년동맹 기관지 『전선』은 통일안이 발표된 후, 현재 실행하고 있다”(박래원, 전선사 주간).
- ㄴ. “아동들의 잡지로는 아이생활, 어린이, 아이동무등이 모두 새철자법 표준이요, 일반 대중의 잡지로는 ... 기타 일반종교서류는 전혀 새철자법만 사용하고……”(최봉칙, 아이생활 주간)
- ㄷ. “우리 조선중앙일보에서 발행하는 『중앙』은 창간이후로 내내 통일안을 좇아 왔으며 ……”(배성룡, 중앙 주필).

(5)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들은 통일안을 ‘실행하고 있다, 사용하고, 좇아 왔으며’라는 기사처럼 자신의 기관에서 통일안대로 쓰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⁸⁾

그러나 아래 (6)은 통일안대로 따르지 못하고 있는 잡지와 그 기관들에 대한 기사이다.

(6) 통일안대로 따르지 못하고 있는 잡지들의 기사

- ㄱ. “『별나라』는 왜 신철자법을 쓰지 않는냐고요. ...말하자면 정성이 없는 게 아니라, 인쇄소문제올시다. ...아마 내년쯤은 ...신철자법으로 개정하여 수만 독자의 청을 저버리지 않으려고 합니다.”(안준식, 별나라 주간).
- ㄴ. “우리 구세군에서 발행하는 구세신문과 그 이외의 여러가지 출판물은

8) 그 밖에도 시조사 주간 왕대가, 개벽사 주간 차상찬, 농보주간사 주간 김병순, 별건곤 주간 이정호 등도 앞으로 통일안을 좇을 것임을 밝혔다.

아직까지 구철자 그대로를 쓰고 있습니다. 그 까닭은 신철자법이 좀더 일반 대중에게 보급되기를 기다리고 있으며, ... 적당한 시기를 보아 그 안으로도 실행할는지 여러분과 의논하여 보아야겠습니다.”(이건영, 구세신문 주간).

- ㄷ. “우리 『신조선』은 ... 원고 관계로 일시에 통일안을 따르지는 못하지만, 차차로 실행하겠다.”(권태휘, 신조선사 주간).
- ㄹ. “『당성』은 ... 우리의 태도와 의도는 이미 작정되어 있으니, 앞으로 더욱 노력할뿐입니다.”(정용봉, 당성 주간).

(6ㄱ, ㄴ)을 통해 볼 때, 잡지를 중심으로 한 인쇄물들이 통일안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대부분 새로 개정된 활자를 준비하지 못한 인쇄소의 문제이거나 통일안이 대중에게 더 널리 보급되면 따르겠다는 이유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들도 역시 당장은 지키지 못하고 있으나 따르려는 노력이 있음을 덧붙이었다(6ㄷ, ㄹ).⁹⁾

(5, 6)에 제시된 기사를 중심으로 당시 신문·잡지들의 통일안 준용 실태를 표로 보이면 아래와 같다.

(표 1) 당시 잡지들의 통일안 준용 정도

수용 정도 분야	잘 지킴	보통	노력 중	못함
언론	동아 일보	조선 일보, 조선 중앙일보		
아동 잡지	아이생활, 어린이, 아이동무			
일반 대중 잡지	신동아, 신가정, 중앙, 신인문학, 학등, 실생활	당성, 청년조선	시조잡지	신조선, 별나라, 신여성, 개벽, 별건곤
기독교	주간 기독교신보, 월간 종교시보, 농민생활, 감리교회회보, 성서조선, 전선			구세신문
학술지	진단학보			

9) 그 외 『청년조선』(김기진, 청년조선 주간), 『신인문학』(노자영, 신인문학 주간), 『성서조선』(김교신, 성서조선 주간), 『학등』(김진호, 학등사 주간), 『실생활』(정세권, 실생활사 사장), 『진단학보』(이병도, 진단학보 편집인) 등도 통일안대로 따르고 있다는 기사가 실렸다.

덧붙이면 통일안에 대한 찬성 여론들로는 각 신문과 잡지이다. 잡지는 90% 이상이 지켰다는 기사가 있다. 특히 ‘동광(東光)’은 잡지로서 뿐만 아니라, 우리말 간행물로서 통일안을 가장 먼저 실행한 잡지였다. 그 뒤를 이어 동아 일보사 간행의 ‘신동아’, ‘신가정’이 통일안을 사용하면서, 그 밖의 거의 모든 잡지가 이를 준용하게 되었다. 또한 ‘한성도서주식회사’에서 발행하던 잡지 ‘학등’은 순전한 통일안에 따라 인쇄하였다.

당시 저명한 인쇄 회사에서는 거개가 새 활자를 준비하였는데, 특히 그 가운데 ‘한성도서주식회사’는 통일안이 나오기 전 일찍부터 통일안에 의한 활자를 준비하고, 이에 관한 인쇄에 응하여 왔기 때문에 모든 인쇄 주문에 응할 수 없게 되어, 구식이나 통일안이 아닌 다른 식의 철자법을 조건 붙이는 인쇄물은 사절하게 될 만큼, 통일안 보급에 공헌한 바가 컸다(한글 학회, 1971).

그 결과는 “이 통일안이 세상에 한번 발표되어 아직 일년이 차지 못하여 일반 사회의 추세가 다 여기에 기울어진것은 숨기지 못할 사실이다. 교육계, 언론계는 그만 두고라도, 각 인쇄소에서 나날이 박아내는 일반 간행물을 보건대, 심에 팔구는 거의 전체나 혹 일부분이라도 모두 통일안 철법을 따르지 않는것이 있는가.”(1934)로 나타났다.

따라서 당시 통일안 반영 여부는 무엇보다도 새 활자의 구비 유무에 달려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새 활자를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기관이라면 한성도서주식회사처럼 통일안대로만 썼으며, 혹 새 활자를 구비할 여건이 못된 경우는 통일안을 준용하지 못한 것이다. 다행히 통일안을 지키는 것이 대세이었으므로 이를 따르고 있지 못한 기관이나 잡지들은 (6)에서 밝힌 것처럼 여건만 된다면 실행할 의지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통일안을 지키려는 여건의 구비는 무엇보다도 기관이나 문인의 의지가 중요했음을 다음 3.2의 문인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3.2 이태준과 이효석 작품에 나타난 표기법 비교

본고는 1933년 통일안 발표 시기에 활발하게 활동한 작가 중 통일안을 준수한 작가와 그렇지 않은 작가를 선별하였다. 그 중 논의의 대상이 된 것은 상허 이태준(1904-?)과 가산 이효석(1907-1942)으로서 이들은 출생 시기와 활

동 시기가 일치하는 작가들이다. 특히 통일안 발표 시기에 활발한 활동을 벌인 작가들이다. 다만 이태준은 2.1 곳곳에서 보듯 통일안 준수를 주장했으며 이효석은 특별한 주장이 없었음이 다를 뿐이다. 서론에서 밝힌 것처럼 본고의 한 의도는 통일안이라는 규범 준수 상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규범 준수를 주장한 이태준과 그렇지 않은 이효석은 당시의 규범 준수 태도에 따른 표기상의 차이점을 살펴보는 데 좋은 작가가 되었다.

우리가 논의의 대상으로 삼은 이태준의 ‘달밤’은 1933년 중앙 창간호에, ‘가마귀’는 1936년 조광 3호에 실렸다. ‘달밤’은 1934년 통일안대로 고쳐 한성도 서주식회사에서 간행한 것이다. 비록 통일안 전에 발표되어 중앙 창간호에 실린 것도 있으나, ‘달밤’ 전편(全篇)을 통일안대로 고쳤다는 기사가 있어(1934. 8), 다른 작품과의 비교를 위하여 원본으로 택했다. 이태준과 동일 시기의 작품으로 이효석 작품을 비교 텍스트로 삼았다. 이효석의 ‘돈(豚)’은 1933년 조선 문학 3호에, 이효석의 ‘산’은 1936년 삼천리 69-71호에 실렸다. ‘산’이 실린 삼천리의 편집인 겸 발행자는 김동환이며, 1936년 발행 당시의 인쇄는 경성 공평동 55번지에 소재한 대동인쇄소였다.¹⁰⁾

인쇄소 선정만으로 보아도 3.1에서 살핀 것처럼 이태준의 작품을 인쇄한 한성도서주식회사는 모범적인 곳이었다. 그러나 대동인쇄소에 대해서는 통일안을 준수했다는 기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통일안대로 지키지 못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아래에서 분석한 것을 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방법론적으로 이들과 동일 시기에 활동한 다수의 작가와 인쇄소를 분석하여 통계 처리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으나 본고에서는 두 작가의 작품을 모본으로 삼아 이들에 대해서만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¹¹⁾

통일안의 순서대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먼저 제3항에 명시된 된소리 표기이다.¹²⁾

10) 논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동시대의 많은 작품들을 통해 자료를 구축하고 그 준용 모습을 살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일은 아직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인쇄소와 작가의 비교를 위해 한성도서주식회사에서 작품을 인쇄한 이태준과 대동인쇄소에서 인쇄한 이효석을 택했다.

11) 본문에서는 필요한 예만 제시하고 분석 대상 어휘들은 부록에 실는다.

12) 이하 제시된 어휘들은 가급적 통일안을 준용한 예를 제시를 원칙으로 했으며, 그러한 예가 없는 경우는 통일안을 준용하지 못했음을 확인하기 위해 준용하지 않은 예를 제시하기도

(7) 병서 표기 방식

- 달밤(ㄱ). 짧아, 쫄럭거리는것
- 가마귀(ㄴ). 까꾸로박히더니, 깨여보니, 꺼내었다, 꼭택이에서는, 끄러안어, 빼여놓고는, 쭈꾸리고
- 돈(ㄷ). 밋헤쌀넛든, 덩척슬째에, 짜출하게, 한박휘돌아올까, 밋헤쌀넛든, 짜치등아리, 썬여났다, 써스
- 산(ㄹ). 갑박어린다, 내쫓춧슴을, 쏘다질듯십게, 뿐이었다, 떠러지는, 잇딜까도, 쫓차, 깨금알같이, 쟁쟁¹³⁾

(7ㄱ,ㄴ)은 통일안대로 어두에 된소리 표기를 취한다. 그러나 (7ㄷ)에서는 시, ㄷ과 심지어는 외래어 표기에 ㅈ과 같은 합용병서가 쓰였다. (7ㄹ)에서는 합용병서는 사라지고 각자병서만 사용된다. 이 점이 주목되는 이유는 조선어학회의 한글과와 조선어학연구회의 정음과와 싸움에서 대립된 대표적인 것이 된소리 표기였기 때문이다. 한글과는 각자병서(ㄹ)를, 정음과는 ㅈ계 합용병서(ㅈ)를 주장하였다. 이효석이 정음과의 합용병서를 취하고 있음이 특이하다. (7)에 제시된 네 작품의 병서 표기 방식 준용 정도는 ㄱ,ㄴ > ㄹ > ㄷ 순이다.¹⁴⁾

다음은 받침 표기이다. 제4항은 “설측음 ㄹ에 관한 규정으로 재래에 설측음 ㄹ을 ㄹㄴ으로 적던 것을 ㄹㄹ로 적기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8) 설측음 ㄹ에 관한 규정

- ㄱ. 일는
- ㄴ. 풀넙으로만 / 날러간지, 날러와, 떨리였다
- ㄷ. 우렁차게들넛다, 휘쓸너 / 들리지안코
- ㄹ. 갈나졌다, 물너들었다, 배가불넛다

(8ㄱ)에서는 정확도가 높아 오기 예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일는’만이 발견된다. 그리고 (8ㄴ)에서도 ‘풀넙’과 같은 굳어진 명사에서만 나타나고, 용언의

했다.

13) 이하 (8)번에서부터는 ‘달밤’은 ㄱ, ‘가마귀’는 ㄴ, ‘돈’은 ㄷ, ‘산’은 ㄹ로 제시하고자 한다.

14) 본고에서는 준용 정도를 표시하기 위해 ‘>’표를 사용하기로 한다.

활용에서는 거의 정확하게 지켜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8ㄷ)에서는 ‘들녘
다, 들리지’와 같이 혼동되어 나타나다가 오히려 (8ㄹ)에서는 더 정확도가 떨
어져 아예 ‘ㄹㄷ’으로 표기된 예가 더 많다. (8)에 제시된 네 작품의 설측음
ㄹ 준용 정도는 ㄱ > ㄴ > ㄷ > ㄹ 순이다.

제5항의 구개음화는 어두음에서 ‘ㄷ, ㅌ’ 등이 단독으로 ‘ㅈ, ㅊ’ 등으로 표
기된 경우이다.

(9) 구개음화

- ㄱ. 가저
- ㄴ. 치여다보니
- ㄷ. 데일귀, 던귀의
- ㄹ. 파뭇처안저

(9ㄱ, ㄴ, ㄷ)에서는 구개음화가 철저히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지켜지지
않은 예들이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9ㄹ)에서만은 지켜지지 않고 어두의
‘ㄷ’이 그대로 나타난다. 구개음화만을 살펴본다면 1933년의 ‘돈’보다는 1936년
‘산’이 표기상 진보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9)에 제시된 네 작품의 구개음화
준용 정도는 ㄱ, ㄴ, ㄷ > ㄹ 순으로 ㄹ이 ㄱ, ㄴ처럼 잘 지켜졌다는 점이 앞에
설명된 항목들과 다르다.

제6항 ㄷ받침소리에서는 “아무 까닭이 없이 ㄷ받침으로 나는 말 가운데 ㄷ
으로만 나는 것을 물론하고 재래의 버릇을 따라 ㅌ으로 통일하여 적는다”라
고 규정하였다.

(10) ㄷ받침 표기

- ㄱ. 웃어운
- ㄴ. 우습, 웃음을
- ㄷ. 바위땃테, 성밧, 밧헤깔녇든
- ㄹ. 파뭇처안저, 바테서뜨더운, 밧갈고

(10ㄱ, ㄴ)에서는 정확하게 지켜지고 있다. 그러나 (10ㄷ, ㄹ)에서는 ㄷ, ㅌ 등
에 대한 구별이 없이 거의 ㅌ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10ㄹ)에서는 ‘밧이,

밧난, 밧짓는, 못된다’처럼 잘 지켜지고 있는 예들이 가끔 발견된다. (10)에 제
시된 네 작품의 ㄷ받침 표기 준용 정도는 ㄱ, ㄴ > ㄷ > ㄹ 순이다. ㄹ이 ㄷ
보다 앞서는 특징이 있다.

제7항의 체언과 토에서는 “체언과 토가 어우를적에는 소리가 변하거나 아
니하거나를 무론하고 바꾸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한다.

(11) 체언과 토 표기

- ㄱ. 온것이, 말은것이다, 하는것이
- ㄴ. 빛이, 먼땃것이, 헌겍에
- ㄷ. 밧테 / 입에, 성박으로나와
- ㄹ. 동구마게서조차, 바테서 / 속에, 곶이

(11ㄱ, ㄴ)과 같이 이태준은 비교적 잘 지키고 있으나, ‘뻥알’으로 표기한
예도 있기는 하다. 이는 아마 아직도 그 어원이 확실하게 남아 있어 소리가
굳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다. (11ㄷ, ㄹ)에서도 두 개의 모습이 다 나타나
혼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1)에 제시된 네 작품의 체언과 토 표기 방식
준용 정도는 ㄱ, ㄴ > ㄷ, ㄹ 순으로 작품마다 다르게 나타나지 않고 작가에 따
라 다르게 나타난다.

제8항의 규정은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다’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12) 어간과 어미 표기

- ㄱ. 찾아땃다, 두드러지는것이, 찾아
- ㄴ. 끄러안어, 다라났다 / 밝어지는
- ㄷ. 마즈면서, 바들가, 업서진
- ㄹ. 견땃수잇슬가가, 도라운썸이였다, 업섯다, 마즌편, 바더본일업다, 수폴
속에서차즌, 어더땃은적업다, 업섯스나, 지천으로떠러지는

역시 (12ㄱ)에서는 정확성을 보이나 (12ㄴ)에서는 가끔 지켜지지 않은 예들
이 발견되곤 한다. 그러나 (12ㄷ, ㄹ)에서는 거의 지켜지지 않아 소리대로 적
었던 전래의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현상은 (12ㄹ)에서는 더
뚜드러지게 나타나 거의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12)에 제시된

네 작품의 어간과 어미 표기 방식 준용 정도는 ㄱ > ㄴ > ㄷ, ㄹ 순이다.

제11항 받침 표기에 대해서는 ‘ㄷ, ㅈ, ㅊ, ㅋ, ㅌ, ㅍ, ㅎ, ㄱ, ㅅ, ㅈ, ㅊ, ㅋ, ㅌ, ㅍ, ㅎ, ㄴ, ㄷ, ㄹ’의 열 여덟 받침을 더 쓰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3) 받침 표기

- ㄱ. 나갓다, 들어섯다/달아났다
- ㄴ. 보았다
- ㄷ. 덩헛다, 안엇다, 매눗코, 멧출전에, 압홀막엇다, 우리엿홀돌아
- ㄹ. 같나갓다, 그러캐휼수잇을가, 개울엿헤, 내쫓갓슴을, 덩허눗고, 압일, 어 더넙은적엿다

(13)에서 볼 수 있듯이 역시 이태준은 철저하게 잘 지키고 있다. (13ㄱ)에서는 ㅅ, ㅆ이 가끔 공존하나, (13ㄴ)에서는 ㅆ으로 일관성 있게 나타난다. ‘머 리 풀어 헬인, 멧번, 님’ 등의 잘못된 받침 표기가 나타나기도 하나 몇 예에 국한된다. 그러나 (13ㄷ,ㄹ)에서는 여전히 ㅅ으로만 표기하고 있고, 그 외 ‘엿 헤, 압일’ 등과 같은 많은 명사류에서도 받침 표기를 지키고 있지 않다. 다만, ‘그넛은세상은’과 같은 예가 발견되기는 하나 드물다. (13)에 제시된 네 작품의 받침 표기 방식 준용 정도는 ㄴ > ㄱ > ㄷ, ㄹ 순으로 ㄴ이 ㄱ에 앞선다.

제15항의 규정에서는 “명사 아래에 ‘이’ 이외의 탄 홀소리가 붙어서 타사로 변하거나 뜻만이 변할적에는 그 말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가 있으나 이들에 해당하는 예는 발견되지 않아 준용 모습을 살피기가 어려웠다. 다만, ‘돈’에서는 다른 것과 달리 규정에 맞게 ‘지봉’으로 나타난다.

제24항의 의성, 의태 부사의 경우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않으므로 예를 들어 ‘개구리’처럼 표기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14) 의성, 의태 부사의 표기

- ㄱ. 인용 예 없음
- ㄴ. 가마귀 / 비둘이
- ㄷ. 고순돏치, 양푼기, 푼기우리
- ㄹ. 개꿀이

(14ㄱ)에서는 해당 어휘가 없어서 발견하기 어려웠으나, (14ㄴ)에서는 제목 자체가 ‘가마귀’이었으므로 잘 지킨 것이다. 다만, ‘비둘이’가 아닌 비둘기로 적어야 하나 ‘비둘이’로 나타났다. (14ㄷ,ㄹ)에서는 작품의 내용상 이런 어휘가 꽤 나타났는데, 모두 통일안을 준용하지 않고 있다. (14)에 제시된 네 작품의 표기 방식 준용 정도는 (14ㄱ,ㄴ)의 예는 나타나지 않으므로 알 수 없고 (14 ㄷ,ㄹ)은 같은 순이다.

제40항은 “기, 비, 시, 치’의 자음은 ‘기, 비, 시, 치’로 적는다.”라는 규정이다.

(15) ‘기, 비, 시, 치’ 표기

- ㄱ. 의기
- ㄴ. 기념
- ㄷ. 기어코, 기차소리, 면소서기들한테, 데일기, 던기의, 용기, 종묘장기수
- ㄹ. 담배연기, 향기로운, 기어코

(15ㄱ,ㄴ)에서는 지키지 않은 예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15ㄷ,ㄹ) 이효석에서는 아주 빈번하게 나타났다. 이효석에서 통일안을 준용하지 않았 음을 확연히 알 수 있는 항목이다. (15)에 제시된 네 작품의 ‘기, 비, 시, 치’ 표기 방식 준용 정도는 ㄱ, ㄴ > ㄷ, ㄹ 순이다.

제42-44항은 두음법칙에 관한 규정이다.

(16) 두음법칙

- ㄱ. 양식
- ㄴ. 이상
- ㄷ. 녀직공, 렬차, 로자
- ㄹ. 락엽속에, 력력히, 로인, 룡녀만한색시는, 리사속적은, 리치도엿섯다

(16)에 대하여 이태준은 철저하게 지켰다. 그러나 (16ㄷ,ㄹ)에서는 오히려 두음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예가 더 많이 보인다. (16)에 제시된 네 작품의 두 음법칙 표기 방식 준용 정도는 ㄱ, ㄴ > ㄷ, ㄹ 순이다.

제61항-제65항은 띄어쓰기에 대한 규정이다. 이들 작품의 띄어쓰기에 대하 여는 통일안 준용 여부를 일일이 설명하지 않고 각 소설의 처음 한두 문단만

제시한다.

(17) 이태준과 이효석 작품의 서두 소개

- ㄱ. 성북동(城北東)으로 이사나와서 한 대엿새 되었을까, 그날 밤 나는 보던 신문을 머리맡에 밀어던지고 누어 새삼스럽게 “여기도 정말 시골이로군!” 하였다. 무어 박알이 킁킁한걸 처음 보고 시냇물 소리와 싸-하는 솔바람 소리를 처음 들어서가 아니라 황수건 이라는 사람을 이날 저녁에 처음 보았기 때문이다.
- ㄴ. “후”, 새로 사온것이라 등피에서는 아직 석유탄도 나지 않았다. 닭을것도 별로 없지만 전에 하든 버릇으로 그렇게 입김부터 불어가지고 어스럼해진 하늘에 비쳐보았다. 등피는 과민하게도 대뜸 뵈-양게 흐려지고 말았다.
- ㄷ. 옛성 모퉁이 버드나무 까치둥우리에 푸르둥·한 하늘이 얹게드러웠다. 툇기우리에서는 하아안양툇기가 고순똥치모양으로 까출하게웅크리고있다. 능금나무가지들 간들간들흔들면서 벌판을부러오는 바닷바람이 책 녹지안은눈속에 덮힌 종묘장(種苗場)보리밭헤 휩쓸너 도야지우리에 모질게부드친다.
- ㄹ. 나무하든손을쉬고 중실은발밑의깨금나무포기를 듯쳤다. 지천으로떠러지는 깨금알이 손안에 오르르들었다. 닉을대로닉은 제철의열매가 어금니사이에서 오드득두쪽으로갈나졌다.

(17)에 제시된 부분만 보아도 띄어쓰기 준용 정도를 가늠할 수 있다. 통일안 제7장 제61-5항에는 띄어쓰기에 대한 설명이 있다. 현대 국어와 비교할 때 통일안에서는 의존명사와 보조용언을 붙여 쓰고 있어 눈에 뜨인다. 위에서 보듯이 이태준과 이효석 작품에서 눈에 띄이는 차이는 띄어쓰기이다. (17ㄱ)에서는 띄어쓰기가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으며, (17ㄴ)에서도 ‘닭을것도별로’ 이외에는 잘못된 띄어쓰기가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17ㄷ,ㄹ)의 ‘돈’과 ‘산’에서는 모두 음보 단위로 띄어 쓰고 있다. 읽을 때의 단위로 띄어쓰기를 했기 때문에 관형어는 체언에, 부사어는 용언에 붙여 표기하였다. 심지어 목적어도 서술어에 붙여 썼다. 동일한 작가의 작품임에도 ‘산’에서는 ‘돈’보다 붙여 쓰기 현상이 심하게 나타난다. 시기가 늦은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지지 않고 악화된 것이 특이하다. 그 외에 (17

ㄷ,ㄹ)은 통일안을 준수하지 않고 있음이 여기저기에서 발견된다. (17)에 제시된 네 작품의 띄어쓰기 준용 정도는 ㄱ > ㄴ > ㄹ > ㄷ 순으로 ㄹ이 ㄷ에 앞선다.

그 이외에 규칙이나 불규칙 용언의 활용은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어 굳이 제시하지 않았다.

통일안에서 표준어는 ‘부록1. 표준어’에 실렸다. 아직 표준어 사정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부록에 넣은 것 같다. 표준어에서 주목할 곳은 ‘모음 3’의 모음조화에 대한 규정으로서 모음조화를 따른다는 내용이다.

(18) 모음 조화

- ㄱ. 찾아(냈다) / 보았기
- ㄴ. 같았다, 안어, 많아서, 밝어지는, 앉았던, 앉았다/ 걸터앉았고
- ㄷ, ㄹ. 안었다

이 규정에 대해서는 (18ㄱ,ㄴ)도 잘 지키지 않고 있어, 양성 모음 다음에 음성 모음이 오는 경우도 있었다. (18ㄱ)에서는 대체적으로 잘 지켰으나 (18ㄴ)에서는 오히려 파괴된 예가 더 많이 발견된다. (18ㄷ,ㄹ)에서는 다른 조항과 마찬가지로 지키지 않는 예가 더 많다. (18)에 제시된 네 작품의 모음조화 표기 방식 준용 정도는 ㄱ > ㄴ > ㄷ,ㄹ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의 표준어에 대하여는 이제까지와 다른 결과가 나왔다. 이제까지 살핀 맞춤법 조항에서는 이태준이 통일안을 더 잘 준수했다면 표준어 조항에서만큼은 이효석이 더 잘 지킨 것으로 나타났다. ‘하늘’의 경우 이효석 ‘돈’에서는 ‘하늘’로 일관되게 나타났으나, 이태준 ‘가마귀’에서는 ‘하늘’로만 나타나고 ‘하늘’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리고 ‘하루’의 경우도 이태준 ‘가마귀’에서는 ‘하루’로만 나타나, 이효석이 표준어를 잘 반영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이태준은 표준어 준용에 있어서는 이효석에 못 미친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태준의 ‘달밤’은 기사대로 통일안을 준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¹⁵⁾ 오히려 1936년에 발표된 ‘가마귀’가 당시의 흐름으로 볼 때 통일

15) 물론 당시 표기법 준용이 작가의 실력인지 출판사의 교정·교열에 의한 것인지 짐작하기 어려운 부분이 발견되기도 한다. 이태준은 ‘달밤’ 발문에서 ‘이 책은 나의 문학생활의 첫 기

안이 널리 보급된 이후이므로 더 철저히 지켜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달밤’보다 정확도가 떨어진다. 이효석의 경우는 1933년에 발표된 ‘돈(豚)’이나 3년의 시차를 둔 ‘산’이나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는 통일안을 준용하려는 의지가 있는 작가와 출판사라면 1933년일지라도 통일안 준용에 모범을 보였으나, 그에 관심이 덜한 작가나 출판사는 별 차이가 없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 결론

본고는 국어학사상 기념비가 된 ‘한글 맞춤법 통일안(1933)’ 발표에 대한 문인들의 활동을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 먼저 문인들에 대한 당시 사회의 기대와 통일안을 이끈 조선어학회의 기대 등에 대하여 살핀 후, 문인들의 태도에 대하여 한글지에 실린 기사를 중심으로 검토해 보았다.

당시 사회는 통일안 마련에 대하여 ‘시대의 대세이며 획기적인 일’로서 교육계, 언론계, 종교계 등은 이를 계몽하고 보급하는 일에 앞장섰다. 그러나 문인들에 대하여는 앞서 나서서 보급하기보다는 작품이나 그들의 글에 통일안을 준용해 주기를 원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큼을 강조했다. 조선어학회도 통일안을 준용한 문인들에 대하여 기사를 실거나 작품을 직접 광고하여 줌으로써 문인들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문인들 역시도 많은 지지를 하였으나 사실 당시의 인쇄, 활자상의 한계로 의욕 만큼 잘 지키지는 못하였다.

문인들의 통일안 준용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통일안을 전폭적으로 지지한 이태준의 1933년 작품 ‘달밤’과 1936년의 작품 ‘가마귀’를 선정하

넘몰로 너기는것이며’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너기는’은 이태준 소설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과는 달리 두음법칙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작가의 발문임으로 작가의 의도를 존중해 주려는 의도로 출판사측이 고치지 않은 것인지, 혹은 출판사측의 실수인지 문제가 남는다. 이 소설집의 서문을 쓴 이은상의 글에서도 ‘가치, 같이’가 혼용되어 나타나는 예나, ‘웨칠지라도’ 등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서는 작가의 의도를 존중하여 준 쪽이 강하다. 다만 띄어쓰기는 동일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이것에 대해서는 출판사의 교정이 따로 있었던 것 같다.

였다. 그리고 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동일한 시기에 나온 이효석의 ‘돈’(1933)과 ‘산’(1936)을 함께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이태준의 ‘달밤’은 어느 작품보다도 철저히 통일안을 반영하였으며, 동일 작가의 작품인 ‘가마귀’도 어느 정도 준용 모습을 보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가마귀’가 더 늦게 나온 작품이라 하여 통일안을 더 잘 지키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와 달리 이태준 작품들과 동일한 시기에 발표된 이효석의 ‘돈’과 ‘산’은 띄어쓰기부터 통일안을 따르지 않는 등 통일안과는 아주 멀었다. 이태준 작품과 같이 ‘산’ 역시 이전 작품인 ‘돈’보다 별로 나아지지는 않았다. 다만 특이한 것은 이효석 작품은 이태준 작품에서보다 표준어는 잘 준수하고 있었다.

문인들의 작품만을 두고 통일안 준용 모습을 말할 수 없는 이유는 당시 인쇄, 출판이 따라 주어야 했다는 상황이 고려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늦게 발표된 작품이라고 더 나아진 것이 아님을 볼 때는 작가의 통일안 준용 의식이 무엇보다 강하게 작용했다고 할 수 있겠다. 즉, 작가의 의식이 선행하고 출판사를 택한 것으로 짐작된다.

통일안이 발표되던 시기는 문인들의 작품도 활발하게 발표된 시기이다. 그러나 문인들의 여러 작품을 다루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논의를 위해서 더 많은 작가의 작품으로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당시의 출판 상황을 좀 더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과제로 남긴다.

■주제어 : 통일안, 문인, 이태준, 이효석, 출판

< 참고 문헌 >

<자료>

이태준(1933), 달밤, 중앙 창간호. 139-144쪽.
 이태준(1934), 달밤, 한성도서주식회사.
 이태준(1936), 가마귀, 조광 3호.
 이효석(1933), 돈, 조선문학 3호.
 이효석(1936), 산, 삼천리 69-71호.
 조선어학회(1933), 한글 맞춤법 통일안, 조선어학회.
 김기진(1934), 문예 시사감, 삼천리.
 김동인(1934), ‘한글의 지지와 수정’, 조선 중앙일보 1934.8.14-24.
 박영희(1934), ‘조선어와 조선 문학’, 『신조선』
 홍기문(1934), ‘조선어 연구의 본령’, 조선일보 1934.10.5-20.

<논문>

김덕신(2006), ‘한글 맞춤법 통일안(1933) 보급을 위한 조선어학회의 활동-한글(1934)지를 대상으로’, 어문학91, 한국어문학회, 99-127쪽.
 박신자(1994), 『이효석 문체 고찰』, 교육논총 10-1,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방효순(2001), 『일제 시대 민간 서적 발행 활동의 구조적 특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와타나베 나오끼(2004), 『임화의 언어론-1930년대 중·후반의 견해를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138, 국어국문학회, 433-460쪽.
 이재춘(1998), 『문학작품 원본의 오류와 변개 양상』, 우리말글 16, 우리말글 학회, 409-427쪽
 이중한 외(2001), 『우리 출판 100년』, 현암사.
 이혜령(2004), 『한글운동과 근대 미디어』, 『한국 근대문학의 형성과 장의 재발견』, 민족문학사연구소 기초학문연구단, 소명출판.
 한글학회(1971), 『한글 학회 50년사』, 한글학회.

[Abstract]

A Study on the Authors' Application and Attitude toward the Announcement of the 'Hangul Machumbeob Tongiran' (1933)

Han, Youngmok · Kim, Deokshin

This study looks at the authors' activities and reaction when 'Hangul Machumbeob Tongiran'(1933) was announced, which has become a monument of the history of Korean.

At the time, the Tongiran, a draft for unified spelling system, was thought of as 'the general trend and epoch-making event,'so many people in education, journalism, and religion took the lead to teach and spread it. Although many authors also supported it, due to the limitation of printing press, they could not use it as much as their desire led them to.

In order to see how authors of the time applied this Tongiran to their works, two of Lee Taejun's works, who gave Tongiran full support, were selected: 'Dalbam' in 1933 and 'Gamagui' in 1936. To compare his works to others,' Lee Hyoseok's 'Don'(1933) and 'San'(1936), which were published at the same year, were also analyzed. As results, it was found out that Lee Taejun's 'Dalbam' reflected Tongiran more thoroughly than any other work. It could also be learned that his another work, 'Gamagui' also showed the application of Tongiran to some extents, but this work followed Tongiran less than 'Dalbam' because it was written later.

The reason why we cannot tell how Tongiran was applied by analyzing authors' works only is that we need to consider the printing press and publication of that time. However, judging from the fact that the later works

were not improved in terms of application of Tongiran, it can be said that in the literary works, authors' will to follow Tongiran was the biggest factor to reflect Tongiran.

Key words : Tongiran, authors, Lee Taejun, Lee Hyoseok, printing press and publication

한영목

충남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대전시 유성구 궁동 충남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전자우편: ymhan@cnu.ac.kr

김덕신

충남대학교 언어교육원 전임연구원
대전시 유성구 궁동 충남대학교 언어교육원
전자우편: kdss@cnu.ac.kr
